

세계 동양학회 학자 500여명 참가

'한국비구니승단' 집중 조명

선사상·선맥·수행방법 등 질문 쏟아져 2004년 '한국비구니...' 국제회의 열기로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 메리옌호텔에서 열린 제54회 세계동양학회(AAS,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에서 한국 비구니 승단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뤄져 한국 불교학의 세계화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1000여명의 회원 가운데 참가 학자만 500명이 넘는 관련분과도 2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불교 특히, 비구니 스님들에 대한 논문이 4편이나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한국불교의 비구니에 대한 연구' 주제로 열린 '여성과 수행' 분과에서는 조은수 미시간대 교수가 사회자로, 로버트 버스웰 캘리

포니아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혜원 스님이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강희정 서울대학교가 '조선초기 불교미술의 여성 후원자들'을, 이향순 조지아대 교수가 '한국 비구니의 문화세계'를, 폴라 아라이 밴더빌트대 교수가 '아시아 비구니에 대한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세계 학계에서는 아직 생소한 한국불교의 비구니 승단에 대한 최초의 논문들이 발표되자, 각각의 많은 불교학자들이 한국 비구니의 선사상과 선맥, 수행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참자들은 전했다. 한편 혜원스님은 미국 아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대 동양학연구소의 초청으로 3일 조지아대학 아카데미 홀에서 '한국 비구니 수행과 그 현대적 의미'라는 주제로 강연해 더욱 주목을 받았다. 6일 열린 세계 동양학회에서 발표된 관련 논문들을 요약, 소개한다.



△6일 제 54회 동양학회 '여성과 수행' 분과에서 발표하는 불교학자들. 왼쪽부터 조은수 교수, 혜원 스님, 아라이 교수, 이향순 교수, 리비아코 교수, 버스웰 교수.

비구니 효시 신라 묘법스님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선 혜원스님(동국대 교수)

한국비구니의 출현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백제(577)에서 경론과 율사(비구니 1인)등을 일본에 보냈다는 기록과, 일본의 선신(善信) 비구니 등이 백제에 와서(588) 백제의 비구니로부터 식차(식차)와 구족제(具足戒)를 받았다

신봉할 수 있게 된 이후 묘법(妙法)이 최초가 된다. 그녀는 법흥왕의 비(妃)였다.

신라에 비구니를 통솔하는 국가기관인 도유나랑(都唯那娘)이라는

신라국가기관 도유나랑 비구니직

수행목표, 호사상 실천 해탈 도달

는 것, 백제 비구니 법명(法明)이 일본 대사의 병을 고쳤다는 것이 보일 뿐이다. 또한 신라는 일선군(一善群) 모독(毛穢)의 동생, 사시(使侍)가 최초의 사미니(沙彌尼)가 되며, 비구니는 신라가 불법을

비구니직이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백제 역시 일본에서 백제비구니의 활동으로 보아 비구니직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계종의 선법의 원류는 중국 임제종종의 간화선이며 선맥은 고려

태고보우로부터 시작된다. 묘법(妙法)은 1887~1975) 스님과 담연선경(湛然禪教, 1904~1994) 스님 등 깨달음의 경지를 보인 수선(修禪) 비구니들은 태고보우의 제맥인 만공, 한암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 징표인 전법계(傳法)를 받기도 했다. 물론 선원에서나와 곳곳에서 사회봉사로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비구니도 많다. 그러나 대체로 선원에서 '깨달음'에 열중하는 것이다.

한국 비구니의 수행은 특히 선택당시의 비구니에 대한 선택의 배려(배려)를 거부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파불교의 여성성불의 불가능에 대한 인지가 없으며 대승경론을 통하여 공사상(空思想)을 실천하는 지성과 의지로서 해탈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류여성들 불상·불화 조성 후원

조선초기 불교미술 후원자들 강희정(서울대 교수)

조선왕조의 승유역불 정책에 도 불구하고 조선초기의 불교는 왕족을 포함한 여성들에 의해 지배적인 종교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여성들은 불상과 불화 조성을 후원함으로써 왕조의 안정과 번영을 기원했다. 배불정책에 따라 상류층 여성들은 자유롭게 비구니로 출가할 수 없었던 반면, 불교미술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이 되었다.

조선초기의 불상과 불화는 대부분 왕족과 양반층 여성들의 보시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러한 불교미술품들은 조선왕조의 종교정책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보시는 양반가와 왕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유교의 가르침과 조화되어 정부의 허락하에 진행될 수 있었다. 따라서 불교미술에 대한 그들의 지원은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원은 상류층의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교 중흥의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남성중심의 유교사회에서 문혀있던 조선초기 불교미술의 상류층 여성 후원자들의 역할을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다.

교정책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보시는 양반가와 왕족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유교의 가르침과 조화되어 정부의 허락하에 진행될 수 있었다. 따라서 불교미술에 대한 그들의 지원은 도덕적 관점에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원은 상류층의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교 중흥의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

비구니스님 득도과정 그려

한국문학 속의 비구니 이향순(조지아대 교수)

한국문학 속에서 비구니를 심각하게 다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비구니 스님들은 아직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비구니 스님들의 신비함은 소수의 작가와 영화제작자들에 의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소설가 한승원, 남지심과 임권택 감독이 대표적이다.

민속과 전설을 포함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수반하고 있는 한승원씨의 <아제아제 바라아제>와 남지심씨의 <우당바라>를 통해 현대 한국문학 속의 비구니 스님들의 이미지와 그들에 대한

관점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다. 두 장편소설은 비구니 스님의 깨달음 과정과 의미를 서사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두 소설에서 채택되고 있는 이야기식의 소설 전개 방식은 서로 다른 득도의 길을 걷는 두 비구니를 돋보이게 한다. 이 인물들을 통해 두 소설은 대승불교의 지혜와 자비심간의 본질적인 연관성을 탐구하고 있다. 두 소설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두 비구니 스님의 시간과 출세간이란 현실에서의 지혜와 자비심을 다룬 예술적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역사학적 방법론 개발돼야

아시아 비구니에 대한 연구 아라이(밴더빌트대 교수)

불교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인 무시는 역사 편찬상 제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성들의 문화적 의미와 종교적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일이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가치와 성과가 알려졌을 때만이 학자들은 그들의 공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에 대한 역사와 생활풍습, 교육, 종교적 실천, 자아인식 등은 명백하게 연구자와 작가의 관점에 의존하고 있다. 연

구자와 연구 성과물들은 상호 작용과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는 학자들의 창조적이고 조직적인 변화의 과정으로서의 문화와 종교에 접근하게 한다. 사실, 학문의 창조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명심하는 것이 여성학에 대한 전망을 새롭게 하는 필수적인 전략의 하나이다. 따라서 아시아 비구니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적 방법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외불교 담당=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日 불교계 '페이오프 해금' 비상

주요교단 "정재 손실있어선 안된다"

보통예금 이체, 국제·지방채 운용 추진

1일 페이오프 해금(금융기관 파탄시 예금보호를 1,000만 엔까지와 그 이하로 하는 조처)에 따라 불교 등 종교계가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주요교단 운용 금융자산이 100억 엔이 넘는 만큼, "신자로부터 모은 정재(淨財)에 손실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필사적이다.

정토진종 본원사(淨土眞宗 本願寺)와 총본산 서본원사(西本願寺)는 4일부터 '페이오프 대책'에 관한 내규(內規)에 따라 자산운용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보시금 등은 지방은행의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운용해 왔지만,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보통예금으로 바꾸어 왔다. 보통예금이 '전액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년 4월부터는 은행의 자

기자본 비율이나 등급, 추가 등을 참고로 예금 거래처를 변경한다. 내규는 국제 운용도 처음으로 허용했다.

진종대국(眞宗大谷)과 본산 동본원사(東本願寺)도 지난 해 5월에 운용규칙을 고치고, 정기예금은 3월 중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국제 외에도 지방채(地方債)나 정부보증채(政府保證債)도 운용할 예정이다.

조종종 종무청(曹洞宗 宗務廳)은 장학금, 공제(供濟) 사업 등의 특별회계별로 분리되어 있던 구채를 4월 1일부터 하나로 정리하고 채권 운용도 가능하게 했다.

일본 동경=정영식 통신원



△전원기법사의 지도로 소림무술을 배우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들.

불교무술로 청소년 포교나서

타슈켄트시 자광사, 달마회도 구성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시 자광사, 김병화사 등 3곳에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광사(주지 양기훈 법사)가 최근 소림무술을 지도하면서 현지 청소년 포교에 나섰다.

타슈켄트시 자광사는 사업가인 전원기 지도법사의 지도로 올해 초

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소림무술반을 개강하자, 3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불교 공부 모임인 '달마회'까지 구성하는 등 청소년포교가 활성화 되고 있다.

후원(팩스)=998-71-1522713



△파괴된 바미안대불.

바미안 대불 복원 다짐

아프가니스탄 정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고대 석불 2개를 폭파, 국제적 공분을 자아낸지 1년만인 10일 아프간 과도 정부가 석불 파괴를 '민족적 비극'으로 규정, 복원을 다짐하고 나섰다. 이날 파괴된 석불 소재지 바미안 현장을 둘러본 하미드 카르자이 과도정부 총리는 "석불복원은 20여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황폐해진 조국 아프간을 재건하는 과업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연한 20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조사가 서쪽에세운 큰 뜻은?

不立文字 見性成佛에 있으며 達摩西來一字無 全憑心印用工夫 若向紙上尋佛法 筆沾尖乾洞庭湖 千經萬典不如心 昂明人中師一點 ●결과자연성 結果自然成

동양 미술 대전 특전 및 동국국제서화대전 대우장 당인묵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전하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 만병의 근원인 비만증을 이기는 법에 동참하시어 체중감량 하소서!

웅조 달마상의 비법은 새대양의 법도로 흥한다. 수백차단 초상 상문, 사업장, 이사 개입 도통과 학업, 진학, 고사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 달마도상을 모셔 소원성취하시고 달마종의 근본 법도와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이그려진 법도를 바로세워 민중생명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본종당 달마종에 입문하시고 본 종단에서는 복지자의 인연을 맺고자 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근 명당비법과 신비의 동양철학 최단기 특강

퇴직자 명퇴자 일반인 초보자 및 철학에 중독하는 지도자 및 청소년 사회전반의 각대학 진로 방향의 마무리 카운셀러비법, 진로과정을 과학적 반응, 물리학적 반응, 심리학적, 심리학적반응으로 미래의 기쁨을 만들 수 있는 특별 강의를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직강. 초보자 특별지도 [전화 02)821-6622, 016-239-31110]

달마도법을 전수받으실 분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2)821-7767] 대한역학풍수지리학술회장 백웅조미륵달마진인경신도통회장

사단법인 한국불교 달마중흥본산 교학원 달마선원장 泰日法師

월드컵 성공기원 및 종교통일세계평화

웅조달마진인경신도통 69회 대법회

제 69회 도통군자들에 천장지비의 비법이 임오년 4월 21日子시와 22日(음3月9, 10日) 오시에 다시없는 해인도법 갖대물 얻어 천안동 타심동 천리봉에 도전하시어 신비의 초능력 갖대물 얻어 지구촌의 이그려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병 육신의병 마음의병 정신의병 잡신의병을 제도 할 수 있는 십이식의 대 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하늘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짓거리다가 허공방망이로 한대맞고 태산같은 병마와 동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인 척하면 하늘이 그냥 무시했습니까. 새천년 비록 달마도법의 요즘의 시대는 팔조산장이 지구촌을 샅샅이 인과법으로 중음신과 잡신(수마, 인마, 병마)에 극성으로 병명도 없이 우환, 질병, 각종 암의 고통으로 집삼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왜 모르고 계십니까. 새시대 세종교 웅조달마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심년할 공부부 단 한번의 경신입문으로 말문과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통하여 건강수명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초능력으로 만병을 다스릴 수 있는 진인경신도통에 입문하여 소원성취하시고 인류 수승되소서. 진사성인출, 오미나 당당의 비밀장과 만병의 근원인 비만증에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얻어 건강수명 장수하시고 도통군자 되소서.

동참하시는 분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는 자이니 선행에 뒤은 인연 공덕으로 초능력을 받아 신선 도인 성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 입제 : 4월 21일 일요일(해시) ●해제 : 22일 월요일(해시)
- 동참금 : 1박 2일 5만원, 침식제공 농 협 029-01-167866 하나은행 157-015402-00108 광덕일(현영) FAX 02)821-7768 02)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 1호선 노랑선역 하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 출구, 일번버스 85, 25, 95, 26, 303, 142, 26-3, 102번 모지원고개 하차.